

물가 오르고 경기 침체... 美 '금리동결' 무게, 6월까지 내릴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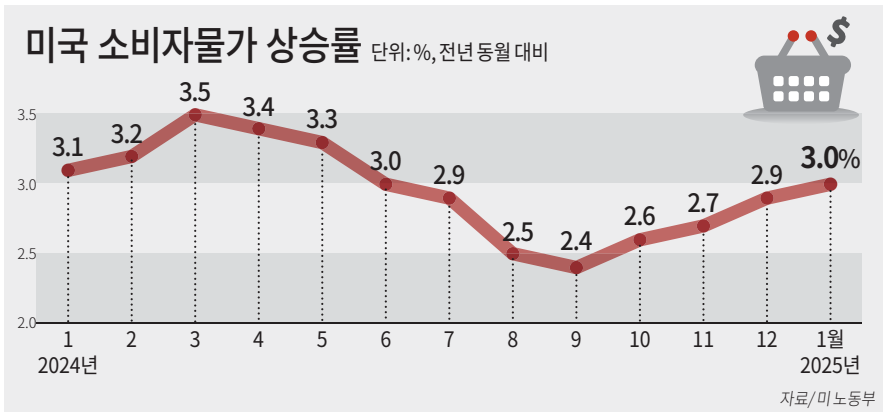
파월 "트럼프 정부, 무역·이민 등 네가지 분야 정책변화 시행 과정 영향력 명확해질 때 기다리겠다"

미국 뉴욕 금리선물 시장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 88%로 내다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관세정책 등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이 명확해질 시기가 되어서야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미국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15만1000개 증가했다. 한달 전(14만3000개)과 비교하면 8000개 늘었지만, 지난해 월평균(16만6000개)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4.1%로 같은 기간 0.1%포인트(p) 올랐다. 1년 전(3.7%)과 비교하면 0.4%p 상승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경기 안 좋아지는데, 물가 상승

문제는 이 상황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기준 3.0%로 한달 전과 비교해 0.1% 상승했다. 지난해 6월 3.0%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지수는 ▲9월 2.4% ▲10월 2.6% ▲11월 2.7% ▲12월 2.9%로 올랐다.

집값을 제외한 개인소비지출 지수는 1월 기준 2.5%로 전달과 비교하면 0.1%p 낮아졌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준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이다. 물가가 높으면 수요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침체에 대비해 금리를 인하한다. 현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비해 금리를 인상할 수도, 경기침체에 대비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 행사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가 무역, 이민, 재정정책, 규제 등 네가지 분야에서 중대한 정책 변화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아직 그에 대한 영향력이 불확실하므로, 서두르지 않고 명확해질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관세 정책 영향 지켜봐야"

전문가들은 연준이 오는 17~18일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시카고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미국 뉴욕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이달 현 4.25~4.50%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8%로 내다봤다. 실업률이 높아지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한달 전(92%)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동결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다음 금리인하는 6월이 되어서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가 공개한 이코노미스트 설문 에 따르면 응답자 101명 중 3월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는 22명, 6월 금리인하를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는 45명이었다. 연말 금리를 전망한 이코노미스트 99명 중 금리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도 16명에 달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3국 간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 중국 수입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한 상태. 이에 대해 캐나다는 보

복관세를 예고했고, 중국은 미국의 농축산물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관세정책이 각 국가의 보복관세로 이어지면 미국의 수입품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가 떨어지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인상) 우려에 대해 "최근 단기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1년 이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2% 물가 목표에 부합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가 예상하는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물가상승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이를 반영해 상품의 가격을 올려 실제로 물가가 상승한다.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목표치 2%에 부합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방향을 두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신동빈, 5년만에 롯데쇼핑 등기이사 복귀

(롯데그룹 회장)

롯데쇼핑 "불황 속 책임경영 의지" 24일 주총서 사내이사 선임 상정



신 회장이 롯데쇼핑 사내이사직에 복귀하는 것은 5년 만이다. 그는 지난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직에 오른 뒤

2013년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이후에도 사내이사직은 유지해 왔다. 그러다 2020년 3월,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만료를 앞두고 사임계를 제출한 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경영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번 신 회장의 복귀는 유통업의 지

속적인 불황 속에서 책임경영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 관계자는 "그룹의 한 축인 유통 부문을 직접 책임지고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통 업계는 오프라인 침체, 온라인 시장 경쟁 심화, 소비 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각종 법정 규제로 인해 온라인과의 경쟁이 심화된 대형마트 경우는 소비 침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삼성, 계열사 16곳 상반기 공채 실시

17일까지 삼성커리어스에서 접수 내달 직무적성검사, 5월 건강검진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이 10일 올해 상반기 공채를 실시한다.

9일 삼성에 따르면 상반기 공채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6곳이다.

공채 지원자들은 10일부터 17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에서 입사희망 회사에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4월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 5월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삼성 미래 세대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국내 주요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재제일(人材第一)' 경영철학에 따라 68년간 이를 유지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